

일부 보호시설에 등록된 미혼모의 특성

주연옥* · 김상순** · 최연희***

서 론

현대의 산업화, 도시화, 정보화로 사회적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이성교제의 기회가 더욱 많아졌으며, 이로 인해 전통적인 한국사회의 가족적, 사회적, 도덕적 규제는 크게 약화되고 있고 더구나 서구의 성개방 풍조가 우리한국사회에 있어서도 점점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또한 청소년의 신체적 성숙의 연령이 낮아지고 행동의 자유가 커짐에 따라 혼전 성행동은 보다 적극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으며, 또한 대중매체도 성에대한 노출이 두드러짐에 따라 청소년의 혼전 성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84). 이러한 사회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 미혼모의 급증인데(홀트아동복지회 경우 1969년에 73명, 1990년말에는 2016명이다). 미혼모란 법적 혼인관계가 아닌 남자와의 사이에서 아기를 임신했거나 분만한 여성을 말하며, 아기를 갖게 한 남자를 미혼부라 한다. 미혼모는 쉽게 노출되지 않는 특성으로 그 수를 쉽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미혼모 문제는 그 자신이나 아이, 그리고 사회전체에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즉 미혼모는 그에게 닥친 모든 문제들을 혼자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녀는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불안이 심화되며 거처할 곳의 문제와 분만에 대한 공

포, 분만비에 대한 문제, 태어날 아기의 양육 문제, 자신의 장래에 관한 문제 등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 또한 학업을 중단하거나,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기므로 심리적,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문제와 같은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김영모, 남세진, 신섭중, 1991).

또한 미혼모들은 아기를 기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그 사생아도 미혼부모와 같이 사회에 여러 문제를 야기시킨다. 즉 미혼모 아기는 입양이라는 사회의 일차적 보호를 제공받지 못하면 기아가 되고 그들의 생존은 사회의 책임여하에 달리게 되며, 부모로부터 버림받음과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함, 애정결핍 등으로 열등감과 죄의식에 빠져 비뚤어지기 쉽다. 따라서 그들의 부모와 같이 비행청소년, 문제아가 되어 제 2의 미혼모가 발생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어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생활기반을 잃게 되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며 이전생활로 다시 복귀하여 재응용해 나가는 것이 어렵게 된다.

이러한 미혼모 문제를 개인의 도덕성의 차원에서 판단하고 개인의 책임으로만 보아서는 안될 것이며 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면, 일정수준의 교육, 의료수혜, 임신에

* 대구 적십자 병원
** 경북대 의대 간호학과
*** 경산대 간호학과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혼전임신과 출산을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 미혼모 발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을 초기에 치료하고 예방되어야 하나 우리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대책이나 연구가 초기단계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독일이나 구미 선진국에서는 미혼모를 좀 더 적극적인 정책적 차원에서 취급하고 있는 경향이어서 미혼모와 그 자녀도 각종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록제도를 마련하여 적절히 보호하고 있고, 사회적 지원을 통하여 원만한 사회복귀를 돕고 있으나(Brockmann AD, 1982), 우리나라의 경우 미혼모를 위한 직접적인 서비스나 정책적 보호대책은 아주 미약한 상태에 있다. 다만 '윤락행위 등 방지법'(1961년 법률 제 771호로 제정·공포)에 근거한 윤락여성, 가출여성, 불우미망인 등과 함께 요보호 여성으로 취급하여 부녀복지사업의 측면에서 상담과 시설보호를 통한 치료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는 형편이다(소법전, 1979).

미혼모와 그 자녀가 사회질서를 문란시키고 국가와 사회에 막대한 자원을 낭비시키게 하며 문제의 규모가 날로 커져가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국가와 사회의 가능한 자원을 아낌없이 동원하여 근본적·장기적 예방대책을 모색해야 하며, 치료도 보다 전문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김근조, 198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혼모의 주위환경은 어떠한었으며, 어떤 조건일때 미혼모가 생길 수 있는지를 미혼모의 일반적 특성, 가족적인 배경, 친구 관계,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 아기 아버지와의 관계 등을 통해서 미혼모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A시에 소재한 1개 미혼모 보호시설 및 입양시설에서 1996년 11월 1일에서 1997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등록된 현행법상 미혼모 74명을 대상으로 등록 당시 대장과 면담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한국여성개발원(1984)이 미혼모 실태조사에서 사용한 내용과 조사대상시설에서 사용하는 상담자료를 참고로 수정 보완하였으며 주소변경, 전화번호변경, 면담거부 등으로 만남을 갖지 못한 7명을 제외하고 실제조사 대상자는 67명으로 1997년 1월 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실시 하였다.

조사내용은 일반적인 특성 9문항, 가족적 배경 7문항, 친구관계 1문항, 성지식 및 성에대한 태도 4문항, 아기 아버지와의 관계 12문항으로 총 33 문항이며 각 항목에 따른 백분율을 산출 하였다.

성적 및 고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령분포는 19세이하가 59.7%(40명)로 가장 많았고 20세에서 24세가 35.8%(24명)였으며 조사대상자의 95.5%가 24세 이하였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인수	%
연 령(세)		
≤19	40	59.7
20≤	27	40.3
학 령		
초졸이하	6	9.0
중 졸	32	47.8
고 졸	29	43.3
임신전 직장		
유	39	58.2
무	28	41.8
현재의 직업		
학 생	7	10.4
생산직	21	31.2
서비스직(다방·식당)	9	13.4
무 직	30	45.0
현재의 주거환경		
부모와 함께	34	50.7
결혼한 형제와 함께	3	4.5
혼자서	5	7.5
친구와 함께	16	23.9
기타	9	13.4
생활수단		
본인이 벌어서	7	10.4
아기 아버지 도움으로	4	6.0
시설·기관의 도움으로	29	43.2
부모·형제의 도움으로	23	34.4
기타	4	6.0
계	67	100.0

석홍(1988)의 연구에서 20세에서 24세의 연령층이 전체 36.9% 가장 많았고, 19세이하가 20%로 24세 이하가 56.9%였다. 상기 두 연구에서 미혼모의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이었으며 10대의 올바른 성교육의 필요

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학력은 중졸이 47.8%로 가장 많았고, 고졸 43.3%, 초졸이하 9.0% 순이었으며, 김근조(1986)의 연구에서 중졸이 34.9%로 가장 많았고, 고졸 31.0%, 초졸 23.6%, 대졸이상과 무학은 3%였다. 여기서 미혼모의 학력별 분포비율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대졸이상의 미혼모 수가 적게 나타나는 이유는 교육수준이 높은 미혼모일수록 피임, 인공유산, 수술등으로 사회사업기관의 도움없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결과 혼전 임신율은 높으나 아기문제를 안고 상담기관을 찾지 않기 때문에 상담기관의 미혼모대상에서 사전에 제외되어 그 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송건용, 1976).

임신전 직업은 58.2%(39명)가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 중 과반수인 21명이 생산직 이었고, 서비스업 종사자 9명 및 학생 7명의 순이었다. 특히 학생이라고 대답한 미혼모는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이 대부분 이었다. 현재의 주거환경은 부모와 함께가 50.7%(34명)로 가장 많았고, 친구와 함께 23.9%(16명), 혼자서 7.5%(5명), 결혼한 형제와 함께 4.5%(3명) 순이었다. 생활수단은 시설·기관의 도움으로가 43.2%로 가장 많았고, 부모·형제의 도움으로가 34.4%(23명), 본인이 벌어서 10.4%(7명), 아기 아버지의 도움으로 6.0%(4명) 순이었다.

가출에 대한 특성은 표 2와 같다. 가출경험 유무에서 62.7%(42명)가 가출경험이 있다고 대답했다.

〈표 2〉 대상자의 가출특성

	인 수	%
가출여부		
무	25	37.3
유	42	62.7
가출연령(세)		
≤19	38	90.5
20≤	4	9.5
가출동기		
경제적인 문제로	2	4.8
가정불화로	20	47.6
친구유혹·충동	17	40.5
무응답	3	7.1
계		100.0

가출연령은 19세이하가 90.5%(38명)로 대부분 이었고, 그 동기는 가정불화 때문에 47.6%로 가장 많았

으며, 친구유혹·충동 40.5%, 경제적인 문제 4.8% 순이었다.

한국여성개발원(1984)의 연구에 의하면 49.2%로 돈을 벌기위해서가 가장 많았고, 가정불화로 16.2%와는 대조를 보인다.

대상자의 가족적 배경은 표 3과 같다. 부모 생존이 68.7%이고, 부모(양방 또는 일방)가 없는 가족이 31.3%였다. 이는 김태진과 김지열 (1974)의 보고에서는 55%, 50%로 약 반수 정도 나타나는데 이것은 부모의 역할이 미혼모의 발생원인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다.

아버지의 직업은 생산직이 44.8%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이 23.9%, 무직 14.9%, 사무관리직 16.4%순으로 대체로 저소득의 불안정한 하층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또한 어머니 직업으로는 가사, 서비스직, 노동직이었으며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생산직, 자영업을 많이 하고 있었다.

부모의 학력에서 아버지는 중졸 28.3%, 초졸 26.9%, 무학 17.9%순이었고, 어머니는 초졸 34.3%, 무학 20.9%, 중졸 16.4%순으로 나타났다.

〈표 3〉 대상자의 가족 배경 ()안은 어머니

	인 수	%
부모생존		
유	46	68.7
무	21	31.3
아버지의 직업		
무직	10	14.9
사무관리직	11	16.4
생산직	30	44.8
자영업	16	23.9
아버지의 학력		
무학	12(14)	17.9(20.9)
초졸	18(23)	26.9(34.3)
중졸	19(11)	28.3(16.4)
고졸	5(2)	7.5(3.0)
무응답	13(17)	19.4(25.4)
계	67	100.0

가정에 대한 불만정도에 관한 질문에 『만족』한다고 대답한 것을 보면 가족의 질병 때문에 76.1%로 가장 많았고, 형제간의 불화가 61.2%, 부모의 직업이 싫어서 61.1%, 부모의 불화가 49.3%, 부모와의 의견대립 때문에 41.8%순으로 나타났다(표 4).

대상자 부모가 자녀에 대한 태도에서 『매우 그렇

〈표 4〉 대상자의 가정에 대한 불안정도

(단위 : 인수(%))

	불 만	보 통	만 족	무응답
경제적인 문제	9(13.4)	25(37.3)	28(41.8)	5(7.5)
부모의 직업	1(1.5)	18(27.0)	41(61.1)	7(10.4)
부모의 불화	9(13.4)	17(25.4)	33(49.3)	8(11.9)
형제간의 불화	9(13.4)	12(17.9)	41(61.2)	5(7.5)
부모와 의견 대립	8(11.9)	25(37.3)	28(41.8)	6(9.0)
가족의 질병	4(6.0)	7(10.4)	51(76.1)	5(7.5)

다』로 대답한것을 보면 ‘나를 칭찬하거나 격려해 주는 말을 잘한다’가 19.4%(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내가 친구를 사귀는 것에 간섭이 심하다’가 17.9%(12명), ‘나의 의견을 잘 들어준다’가 16.4%(11명), ‘내가 하고싶은 일은 일단 부정적으로 본다’가 7.5%(5명)순으로 나타났다(표 5).

대상자 친구의 성에 대한 태도는 표 6과 같다. ‘내 친구들은 결혼전 성관계를 가져본 경험이 있다’가 81.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내 친구들은 결혼전 성관계를 가질수 있다고 생각한다’가 79.1%, ‘친구들과 성에 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한다’ 76.1%, ‘내 친구들은 결혼전 동거할 수 있다’가 71.3%, ‘내친구 중 결혼전 임신한 적이 있다’는 63.6%, ‘내친구 중 결혼전 유산해 본적이 있다’가 56.9%로 가장 낮았다.

성관계에 대해 미혼모는 대단히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남고생의 16.2%가 성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성행위 대상자(복수응답)로는 여자친구가 74.7%로 가장 많았으며 우연히 만난 여성 34%, 창녀 16.6%

술집여자 11%, 콜걸 9.4% 순이었으며 친척 3%, 동성 남자친구 3.4%로 나타났다(성문화연구소, 1997).

미혼모가 체계적으로 성교육을 받은적이 있었는지 유무는 표 7-1과 같다.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적이 없다고 70.1%로 가장 많았고 29.9%만이 받은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표 7-1〉 대상자의 성교육 습득 유무(체계적으로 받은 경우)

	인 수	%
성교육 습득		
유	20	29.9
무	47	70.1
계	67	100.0

미혼모의 성·피임에 관한 지식의 습득은 월,주간 잡지가 64.2%로 가장 많았고, 친구가 53.8%, 대중매체 50.7%, 학교 47.8%, 비디오·성교육책자 25.4%, 가정·직장동료 10.4%순이었다(표 7-2).

성충동, 피임법, 성병 등 성에 관한 고민이 있을 경우 주로 친구 53.5%와 상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가 5.7%, 교사는 1.5%였으며 거의 대화나 상담을 하지 않는다는 학생이 26.0%나 되었다(성문화연구소, 1997).

한국여성개발원(1984) 연구에 의하면 가정에서의 성교육이 결여되고, 주위의 동료집단이나 흥미위주의 잡지등을 통하여 무분별하게 성지식을 받아들이게 됨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경우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시

〈표 5〉 대상자 부모가 자녀에 대한 태도

(단위 : 인수(%))

	매우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무응답
나의 의견을 존중하고 잘 들어준다.	11(16.4)	46(68.6)	6(9.0)	4(6.0)
내가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해 간섭이 심하다.	12(17.9)	31(46.3)	21(31.3)	3(4.5)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일단 부정적으로 본다.	5(7.5)	26(38.8)	32(47.7)	4(6.0)
나를 칭찬하거나 격려해 주는 말을 잘한다.	13(19.4)	39(58.2)	12(17.9)	3(4.5)

〈표 6〉 대상자 친구의 성에 대한 태도

(단위 : 인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친구들과 성에 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한다.	51(76.1)	16(23.9)
내친구들은 결혼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53(79.1)	14(20.9)
내친구들은 결혼전 동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51(71.3)	15(22.7)
내친구들은 결혼전 성관계를 가져본 경험이 있다.	54(81.8)	12(18.2)
내친구중 결혼전 임신한 적이 있다.	42(63.6)	24(36.4)
내친구중 결혼전 유산해 본적이 있다.	37(56.9)	28(43.1)

키고 성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갖는데 저해요소가 된다. 따라서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성교육 실시가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다.

〈표 7-2〉 대상자의 성·피임 지식의 습득경로

(단위 : 인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가 정	7(10.4)	60(89.6)
학 교	32(47.8)	35(52.2)
친 구	36(53.8)	31(46.2)
직장동료	7(10.4)	60(89.6)
대중매체(TV·라디오·신문)	34(50.7)	33(49.3)
월·주간잡지	43(64.2)	24(35.8)
비디오	17(25.4)	50(74.6)
성교육책자	17(25.4)	50(74.6)
기 타	2(3.0)	65(97.0)

미혼모의 혼전 성관계에 대한 견해는 표 8과 같다. 『그렇다』로 대답한 것을 보면 ‘서로 사랑한다면 상관 없다’가 76.1%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비난을 받는다’가 59.7%, ‘앞으로 결혼에 지장을 준다’ 52.2%, ‘친구가 이 사실을 알아도 상관 없다’ 35.8%, ‘성관계를 가지면 결혼해야 한다’ 15.0%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성관계와 결혼과는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성관계가 이루어진 상황을 살펴보면 ‘서로 사랑하는 사이여서’ 55.2%(19세이하는 47.5%이고, 20세 이상은 66.7%)가 가장 많았으며,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20.9%(19세이하가 27.5%이고, 20세 이상은

11.1%)였고, ‘순간적인 충동으로’ 11.9%(19세이하가 15.0%이고, 20세 이상은 7.4%)로였고, ‘결혼 하자고 해서’가 6.0%(19세이하는 0%, 20세 이상이 14.8%)순으로 나타났다(표 9).

성관계 장소로는 자취집이 40.2%(19세이하가 45.0%이고, 20세 이상은 33.3%)로 가장 많았고 여관이 35.8%(19세이하는 27.5%이고, 20세 이상은 48.2%), 자택 및 기타가 12.0%(19세이하는 15.0%이고, 20세 이상은 7.4%)순으로 나타났다. 19세이하의 미성년자일 경우는 자취집이나 자택이 대부분 이었고 20세 이상의 경우는 여관이 많았다.

본인이 임신을 처음 알게 된 시기는 13주에서 24주(4~6개월)사이가 44.8%(19세이하는 42.5%이고, 20세 이상은 48.2%)로 가장 많았고, 12주미만(3개월 미만)에서 36.0%(19세이하는 30.0%이고, 20세 이상은 40.7%), 25주 이상은 13.4%순 이었고 임신당시까지 몰랐던 미혼모도 7.5%나 되었다(표 10). 이들은 성이나 임신에 대해서 무지했고 나이가 많을 수록 임신을 인지시기를 조금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경제적인 문제 외에도 사회적인 수치감 때문에 외부에 알리지 않으려는 심리적인 이유도 크게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다.

미혼모가 인공유산술을 하지 않은 이유는 표 11과 같다. ‘임신사실을 모르고 시기를 놓쳐서’ 37.3%(19세 이하가 40.0%이고, 20세 이상은 37.0%)가 가장 많으며, ‘돈이 없어서’ 28.3%(19세이하가 30.0%이고, 20세 이상은 29.6%), ‘생명에 대한 애착’ 18.0%(19세이

〈표 8〉 대상자의 혼전 성관계에 대한 견해

(단위 : 인수(%))

	그렇다	그렇지 않다	무응답
서로 사랑한다면 상관없다.	51(76.1)	16(23.9)	-
친구가 이 사실을 알아도 상관없다.	24(35.8)	42(62.7)	1(1.5)
성관계를 가지면 결혼해야 한다	10(15.0)	55(82.0)	2(3.0)
앞으로 결혼에 지장을 준다.	35(52.2)	31(46.3)	1(1.5)
사회적 비난을 받는다.	40(59.7)	19(28.4)	8(11.9)

〈표 9〉 성관계가 이루어진 상황

	≤ 19	20 ≤	계
결혼하자고 해서 -	4(14.8)	4(6.0)	-
서로 사랑하는 사이여서	19(47.5)	18(66.7)	37(55.2)
순간적 충동으로	6(15.0)	2(7.4)	8(11.9)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11(27.5)	3(11.1)	14(20.9)
기 타	4(10.0)	-	4(6.0)
계	40(100.0)	27(100.0)	67(100.0)

〈표 10〉 성관계 및 임신인지 시기 (단위 : 인수(%))

	≤19세	20세≤	계
성관계 장소			
자택	6(15.0)	2(7.4)	8(12.0)
자취집	18(45.0)	9(33.3)	27(40.2)
여관	11(27.5)	13(48.2)	24(35.8)
기타	5(12.5)	3(11.1)	8(12.0)
임신을 알게된시기(주)			
≤12	12(30.0)	11(40.7)	23(34.3)
13~24	17(42.5)	13(48.2)	30(44.8)
25≥	7(17.5)	2(7.4)	9(13.4)
모르겠다	4(10.0)	1(3.7)	5(7.5)
계	40(100.0)	27(100.0)	67(100.0)

〈표 11〉 인공유산율 하지 않는 이유

	≤19세	20세≤	계
아기 아버지와의 관계유지를 위해서	2(5.0)	2(7.4)	4(6.0)
생명에 대한 애착	8(20.0)	4(15.0)	12(17.9)
시기를 놓쳐서	16(40.0)	10(37.0)	26(38.8)
돈이 없어서	12(30.0)	8(29.6)	20(29.9)
무응답	2(5.0)	3(11.0)	5(7.4)
계	40(100.0)	27(100.0)	67(100.0)

이하가 20.0%이고, 20세이상은 15.0%), 무응답과 아기 아버지와의 관계유지를 위해서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임신에 대한 무지로 시기를 놓쳐 인공유산을 하지 않은 경우는 19세이하의 나이에서 많이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임신중절을 못한 경우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이 된 후 누구와 상의 했는가는 표 12와 같다. '친구'가 41.8%(19세이하가 47.5%이고, 20세이상은 29.6%)로 가장 많이 차지 했으며 '아기 아버지'가 23.9%(19세이하가 15.0%이고, 20세이상은 33.2%)였고, '아무와도 상의하지 않는다'가 16.4%(19세이하가 12.5%이고, 20세이상은 22.2%), '가족·친척'과 상의한 경우 13.5%(19세이하가 15.0%이고, 20세이상은 15.0%), 선배나 선생님은 4.5%(19세이하가 10.0%이고, 20세이상은 0%)순으로 나타났다.

아무와도 의논을 못한 경우 사회복지기관에 찾아와 처음으로 임신에 대해 의논하는 미혼모도 있었다. 이처럼 10대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대부분이 친구하고 상의하는 것은 또다른 청소년 비행률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본다. 20세이상의 미혼모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아기 아버지와 상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12〉 임신이 된후 누구와 상의했는가

(단위 : 인수(%))

	≤19	20≤	계
가족·친척	6(15.0)	4(15.0)	10(14.9)
친구	19(47.5)	8(29.6)	27(40.4)
아기아버지	6(15.0)	9(33.2)	15(34.3)
아무와도 상의하지 않는다	5(12.5)	6(22.2)	1(16.4)
선배·선생님	4(10.0)	-	4(6.0)
계	40(100.0)	27(100.0)	67(100.0)

미혼부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3과 같다. 미혼부를 알아봄으로써 미혼모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미혼부의 연령, 교육정도, 결혼형태, 이별유무, 직업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미혼부의 연령을 살펴보면 20에서 25세가 47.7%로 가장 많았고, 19세미만 25.3%, 26세 이상 18.0%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20세이상이 72.1%로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10대 미혼모가 59.7%차지하고 있는 것(표 1)과 비교해 볼때 미혼모보다 약간 높은 연령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유유박(1980)의 연구는 20세이상이 49.0%로 가장 많았던 결과와 유사하다.

미혼부의 교육정도는 고졸 65.7%, 대졸 10.4%, 중학교 이하 6.0%로 나타나 대체로 교육수준은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유유박(1980)의 연구에서 미혼부의 교육정도가 고졸이상이 58.3%, 중졸이하가 39.6%로 나타나 미혼모보다 미혼부가 높은 교육수준을 가졌음을 보여준다.

미혼부의 결혼형태는 미혼이 64.2%로 가장 많았고 기혼자도 4.5%있었다. 미혼부와의 동거유무는 '헤어졌다'가 67.2%로 가장 많았고 '가끔 왕래한다'가 26.8%, '동거한다'가 6.0%순이었다.

미혼부의 직업은 무직 35.8%, 사무관리직·학생 22.4%, 생산직 19.4%순이었다. 미혼부의 직업은 그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났으나 대체로 단순직, 기능직, 서비스직, 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안정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직업을 지닌 사람은 소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신사실을 미혼부에게 알린 유무를 보면 미혼부에

〈표 13〉 미혼부의 일반적 특성

	인 수	%
연 령(세)		
<19	17	25.3
20~25	32	47.7
26<	12	18.0
모르겠다	6	9.0
교육정도		
중졸이하	4	6.0
고 졸	44	65.7
대 졸	7	10.4
모르겠다	12	17.9
결혼형태		
미 혼	43	64.2
기 혼	3	4.5
별 거	1	1.5
모르겠다	20	29.8
동거유무		
동거한다	4	6.0
가끔 왕래한다	18	26.8
헤어졌다	45	67.2
직 업		
무 직	24	35.8
사무관리직	15	22.4
생산직	13	19.4
학 생	15	22.4
임신사실 알린 유무		
알 린(세)		
≤19	20(50.0)	36(54.0)
≤20	16(59.3)	
알리지 않음(세)		
≤19	20(50.0)	31(46.0)
≤20	11(40.7)	
임신사실을 알렸을때의 미혼부의 반응		
결혼하자고 했다	4	11.1
낳아서 입양권함	17	47.2
유산시키라고 했다	11	30.6
소식이 끊어졌다	4	11.1
임신사실을 미혼부에게 알리지 않았던 이유		
아무런 도움을 못줄 것 같아서	7	22.6
스스로 책임지고 싶어서	6	19.4
이미 헤어진후 어디 있는지 몰라서	10	32.3
강간당해 누군지 몰라서	3	9.7
기 타	5	16.0
계	67	100.0

게 알린 경우가 54.0%(19세이하는 50.0%이고, 20세 이상은 59.3%)였고 알리지 않았다가 46.0%(19세이하는 50.0%이고, 20세 이상은 40.7%)로 나타났다. 이는 20세 이상의 미혼모는 미혼부에게 임신사실을 알렸

으며 19세이하는 대부분 알리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임신사실을 알렸을 때 미혼부의 반응은 '낳아서 입양을 권함'이 47.2%로 가장 많았고 '유산시키라고 했다'가 30.6%, '결혼하자고 했다와 소식이 끊어졌다'

가 각각 11.1%로 나타났다.

미혼모의 93.7%가 입양서비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었고 분만보조가 28.0%, 숙식보호 서비스를 25.1%로 각각 받고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아기 입양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매우 낮은 서비스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또 미혼모의 55.5%가 가능하면 아기를 미혼부에게 입양시키기를 원하였고 그외 본인에게 26.2%, 모르겠다가 12.4%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미혼모가 아기를 미혼부에게 입양시키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대부분 입양을 시키게 되는 것은 미혼모의 68.9%가 미혼부와 헤어진 상태였다(한국여성개발원, 1984). 본 연구에서도 '헤어졌다'가 67.2%로 나타났다.

임신사실을 미혼부에게 알리지 않았던 이유로는 '이미 헤어진 후 어디 있는지 몰라서'가 32.3%로 가장 많았고, '아무런 도움을 못줄 것 같아서' 22.6%, '스스로 책임지고 싶어서' 19.4%, '강간당해 누군지 몰라서'가 9.7%순이었다.

대상자 자신에 대한 생각은 표 14와 같다.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문항에 '그렇다'라는 응답이 62.7%로 미혼모 자신이 현재 미혼모가 된 자신을 후회하고 있었으며 '나는 여자로서 매력 있다'라는 문항에 '그렇지 않다'가 37.3%이고,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에 '그렇지 않다'가 10.4%, '자기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에 '그렇다'가 16.4%로 일부에서 재기의 용기를 상실한 미혼모가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배려와 지지를 통한 사회복귀를 위한 방안에 마련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겠다.

10대 미혼모가 미국은 1975년에 52.1%, 덴마크는 1960년 42.2%, 서독 1979년에 31.4%로 나타났는데(Brockmann AD, 1982), 우리나라의 경우 1975년 21%(김태진, 1975)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59.7%로

나타났으며, 사회환경이 국제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므로 10대 미혼모의 증가될 가능성은 계속 되리라 생각한다(한국여성개발원, 1984).

이처럼 10대 미혼모에 대한 올바른 성교육을 조기에 실시하여 성질서의 확립이 가능하도록 해야겠다. 10대 미혼모 대부분이 막연한 성충동이나 호기심으로 성관계를 가지므로써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사회문제를 예방적으로 대처하기 보다는 문제발생후 대처하는 치료적 경향이 있으나 이제는 예방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 같다.

이명홍(1981)은 미혼모 발생을 어떠한 퍼스널리티 형태, 가족관계 또는 사회환경의 결과로 보지 않고, 개개인의 성지식의 취득방법, 데이트 형태, 부모의 교육방법, 부모의 사랑, 보상의 표현등이 밀접하게 관련 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개개인의 출신순위, 가족형태, 부모의 상호의존관계 등에 의해서도 좌우된다고 보았다.

요 약

본 연구는 T시에 소재한 1개의 미혼모 보호시설 및 입양시설에서 1996년 11월 1일에서 1997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등록된 현행법상 미혼모 74명중 7명을 제외한 67명을 1997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설문지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혼모의 연령은 59.7%(40명)가 10대 였으며 24세 이하가 95.9%로 높게 나타났다. 학력은 중졸이하였고 임신전 취업상태는 58.2%(39명)였고 이 중 취업 미혼모의 44.6%가 사회적으로 하층직업이라 불리는 단순노무직이나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가출여부에서 62.7%(42명)가 가출한 경험이 있었고 가출연

〈표 14〉 대상자의 현재 자신에 대한 생각

(단위 : 인수(%))

	그렇다	보 통	그렇지않다	무응답
나는 여자로서의 매력에 자신이 있다.	2(3.0)	40(59.7)	25(37.3)	-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	42(62.7)	17(25.4)	8(11.9)	-
나는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될지 잘 모르겠다.	19(28.4)	33(49.3)	14(20.8)	1(1.5)
나는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내자신을 터놓고 이야기한다.	19(28.4)	34(50.7)	14(20.9)	-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린다.	12(17.9)	27(40.3)	27(40.3)	1(1.5)
나는 사람들과 쉽게 친해진다.	13(19.4)	45(67.2)	9(13.4)	-
내가 찬성하지 않을 때는 남들이 원하는 대로 따를 수 없다.	12(17.9)	36(53.3)	18(26.9)	1(1.5)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면 목적을 대부분 달성할 수 있다.	21(31.3)	38(56.8)	7(10.4)	1(1.5)
자기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11(16.4)	26(38.8)	29(43.3)	1(1.5)

령은 19세이하가 90.5%였으며, 동기로는 가정불화가 4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부모가 68.7% 차지했으며 부모가 같은 직업에 대부분 종사하고 있었다. 교육정도는 아버지가 중졸, 어머니는 초졸이었고 부모님의 성에 대한 태도는 폐쇄적이고 미혼모는 개방적이었다. 인공유산을 하지 않은 이유는 시기를 놓쳐서가 37.3%였고 임신이 된후 누구와 상의 했는가라는 질문에는 친구가 41.8%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 자신의 성에 대한 지식과 피임방법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고, 순간적 부정적인 것으로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성에 관한 지식 습득은 대부분이 월, 주간잡지가 64.2%로 가장 많았고, 친구가 53.8%, 대중매체가 50.7%, 학교에서가 47.8%, 가정에서는 4%에 불과했다. 성관계의 장소로는 19세이하의 자취집이 45.0%로 가장 많았고, 20세이상에서는 여관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48.2%로 가장 많았다. 또한 임신을 알게 된 시기는 20세 이상이 19세이하보다 조금 더 일찍 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이 성에 대해 잘못된 지식의 습득과 가정의 불화로 10대 미혼모를 급증시키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 그러므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에서의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여 미혼모를 감소시켜야 되며, 국가와 사회에서도 장기적·근본적 예방대책을 위해서 치료보다 전문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근조(1985). 미혼모와 그 자녀의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사회개발논총. 제 7호.
- 김명숙(1984). 부녀복지시설. 한국여성개발원 교육연구실편. 여성지도자연구.
- 김영모 등(1991). 현대사회복지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서울. 214-220.
- 김지열(1974). 미혼모에 대한 기초적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 대한가족계획협회 부설 성문화연구소(1996). 성행태에 관한 관한 조사.
- 서경숙(1987). 미혼모 발생 예방대책에 관한 프로그램개발. 한국여성개발원. 48-85.
- 석 홍(1988). 미혼모에 관한 제법제의 연구. 대구산업전문대학. 191-210.
- 송건용(1976). 한국부인의 혼전임신에 관한 연구. 가족계획 논총.
- 이명홍(1980). 미혼모에 대한 예방적 접근책. 아동복지. 봄호(7).
- 이춘기, 성명옥(1991). 미혼모 복지대책의 발전적 방향설정에 관한 연구. 84-85.
- 유상렬(1979). 10대 미혼모와 청소년 문제. 사회복지(62).
- 유유박(1980). 한국 미혼모 문제와 그 대책. 석사학위논문.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10-24.
- 정귀애(1981). 여고생 및 미혼근로여성의 월경 및 성 문제에 관한조사. 중앙의학. 제 40권 4호. 257-265.
- 최재석(1981). 미혼모의 문제.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151-152.
- 탁연택(1974). 한국의 미혼모 문제. 여성 103호.
- 한국여성개발원(1984).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 1-295.
- 홀트아동복지회(1983). 1980년대의 보호여성 문제대책에 관한 국제세미나.
- Brockmann AD.(1982). 독일연방공화국의 미혼모. 1980년대의 보호여성 문제대책에 관한 국제세미나. 홀트아동복지회. 48.
- Vincent E.(1961). Unmarried Mothers. Free press. New York.
- Scales P.(1981). Sex education and prevention of teenage pregnancy. Temple Univ press. Philadelphia. 217-220.

— Abstract —

Key Words : The Characteristics of Unmarried Mother

The Characteristics of Unmarried Mother in some Shelters

Ju, Yeon Ok · Kim, Sang Sun***

*Choi, Yeon Hee****

To know the characteristics of the unmarried mother.

We need to investigate what kind of circumstances the unmarried mother comes from and

under which conditions created her situation.

This investigation's purpose is to provide general information on how to prevent this situation.

There are many unmarried mothers registered in support groups for single mothers in A City.

We surveyed 67 single mothers registered from Nov. 1 '96 — April 30 '97.

The questions of the survey asked for general characteristics, family background, friendship, attitude and knowledge toward sex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baby's father.

We analysed this research data into a percentages.

* Taegu Red Cross Hospital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Kyungsan University